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전국민족단결진보모범 추천선정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 발부

【북경 6 월 18 일발 신화통신】최근,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국민족단결진보모범 추천 선정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 중앙과 국무원은 올해 처음으로 당 중앙과 국무원의 명의로 전국민족 단결진보모범 표창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통지는 추천선정사업의 총체적 요구를 명확히 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가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20 차 당대회 및 중앙민족 사업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선정표창사업에 대한 당의령도를 견지하고 정치적 기준을 견지하며 중화민족공동체의를 다지는 주선 요구를 뚜렷이 해야 한다. 실적 인도를 뚜렷이 하고 2019 년 전국민족단결진보모범 표창이래 우리 나라 민족단결진보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각 지, 각 업종에서 융솫을쳐나온 민족 단결진보모범을 선정표창하며 선진 사적을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공산당,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여러 민족 인민들의 높은 인정을 확고히 하며 새 로정에서 단결분진하고 새시대에 적극 공을 세우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전면 추진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위해 꾸준히 분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통지는 추천선정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했다. 2019 년이래 우리나라 민족단결진보사업에 뚜렷한 기여를 한 모범집단과 모범개인은 모두 추천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되는 고인은 추서받을 수 있다. 추천 대상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제반 임무의 락착을 추진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삶의 터전을 구축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다지는 리론연구와 선전교육을 깊이 전개하며 민족 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국가 통일을 수호하고 분렬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선정표창사업에 대한 당의령도를 견지하고 정치적 기준을 견지하며 중화민족공동체의를 다지는 주선 요구를 뚜렷이 해야 한다. 실적 인도를 뚜렷이 하고 2019 년 전국민족단결진보모범 표창이래 우리 나라 민족단결진보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각 지, 각 업종에서 융솫을쳐나온 민족 단결진보모범을 선정표창하며 선진 사적을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공산당,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여러 민족 인민들의 높은 인정을 확고히 하며 새 로정에서 단결분진하고 새시대에 적극 공을 세우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전면 추진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위해 꾸준히 분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통지는 추천선정 절차와 사업 요구를 명확히 했다.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알심들여 조직, 실시하여 당위(당조)의 령도와 점검 역할을 확실히 발휘해야 한다. 규정된 기준, 조건과 절차에 따라 추천 대상의 정치자질, 주요 실적과 대중 인정 정황을 전면적으로 고찰하여 추천 대상의 선진성, 대표성과 시대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고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며 대중의 평가를 중시함으로써 공개, 공평,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

연길공항, 2023 년 최우수공항으로 선정

6 월 14 일, CAPSE(민항력객봉사평정기구)가 주최하고 항주공항이 협조한 2024 CAPSE 년간 정상회의가 항주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제 10 기 CAPSE 항공 봉사 순위를 공개한 가운데 연길조양전국제공항(이하 ‘연길공항’)이 2023 년도 최우수공항(려객 운송량 100 만~200 만급)으로 선정되었다고 18 일 연길시당위 선전부에서 전했다.

2023 년, 연길공항의 렬객 운송량은 연 130 만 2,718 명에 달했다. 그 해 10 월 7 일, 연길공항은 렬객 운송량이 연 100 만명 수준으로 회복되어 2011 년에 처음으로 렬객 운송량이 연 100 만명을 돌파한 이후 또 다시 전국 100 만급 공항 반렬에 오르며 동북지역 지선공항 1 위 지위를 되찾았다. 올해 5 월말까지 연길공항의 렬객 운송량은 연 72 만 2,000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6.47% 성장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중 국제려객 운송량은 연 25 만명으로 동북지역 3 위를 차지하고 국제려객 비율은 35%로 상해浦东공항에 이어 전국 2 위를 차지했다.

연길공항은 렬객 만족을 목표로 봉사 조치를 혁신, 개선하고 있다.

도시 ‘제 1 창구’의 자세로 연변 인민의 열정을 전달하고 도시 브랜드와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문화관광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다. 또한 성, 주, 시 문화관광부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항공편을 새롭게 증가하고 운행 빈도를 높였는데 여름 시즌에는 연길—유방—장사, 연길—온주, 연길—위해—남평 등 항로를 추가 운행하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최우수공항 선정은 CAPSE 렬객 평가 빅데이터 플랫폼에 기반을 뒀는데 이 통계수치는 2023 년 1 월부터 2023 년 12 월까지의 228 개 항공사, 659 개 공항, 32 만 7,960 개 항공편을 포괄하며 117.6 만분의 렬객 평가를 수집해 항공권 구매, 공항 교통, 탑승 수속 및 안전검사, 기내 봉사, 수하물 봉사 등 고리에 대한 렬객 평가를 반영했다.

CAPSE 데이터 연구팀은 렬객의 진실되고 효과적인 평가와 다차원적인 심사를 거쳐 공평하고 공정하게 최우수항공사, 최우수공항 등을 선정하고 있는데 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상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리전기자

경준해, 전 성 개방협력좌담회서 강조 시종 진취적인 마음가짐과 달리고 따라잡는 상태 유지하고 선진경험을 학습 참고하여 개방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호옥정 참석

6 월 17 일, 성당위 서기 경준해는 전 성 개방협력좌담회를 소집, 사회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시대 동북전면진흥추진 좌담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최근 몇년간 성당정대표단의 학습고찰 성과를 체계적으로 총화하며 시종 진취적인 마음가짐과 달리고 따라잡는 상태를 유지하고 선진경험을 학습, 참고하며 개방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새시대 길림 전면진흥의 솔선 돌파를 추진하는 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했다.

회의에서 각 시(주), 장백산보호개발구와 성발전개혁위원회, 성상무청, 성문화관광청의 주요 책임 동지들이 학습체험, 협력진전 및 다음 단계의 사업조치를 보고했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년간 전 성은 국가 중대 전략과의 연결을 강화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5 가지 협력’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사상을 한층 더 해방하고 개방포용하고 활성화하며 주동적으로 새로운 발전 구도에 봉사하고 융합시켜 선후로 15 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가서 학습교류를 깊이있게 전개함으로써 제반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했다. 우리는 일련의 좋은 경험과 방법에 대한 총화를 거쳐 형제 성, 자치구, 직할시들의 핵심을 바싹 따르고 전략을 잊지 않는 충성심, 높이 서서 멀리 내다보고 잘 계획하고 행동하는 개척심, 힘써 다스리고 용감하게 앞을 닦는 진취심, 감히 남보다 앞서고 대담하게 낚는 것을 따파하고 혁신하는 변혁심,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개명심이 제반 사업을 잘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체득했다. 우리

는 깊이 학습하고 사고하며 진지하게 참고하여 운용해야 한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 성 각지, 각 부문은 선진이 되는 일에서 ‘앉아있지만 해서는 안되며’ 솔선 돌파에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되며’ 따라잡기에서 ‘느려서는 안된다’는 책임감과 긴박감을 자각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목표를 확고히 정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과감히 뛰어들어 일하고 실제로 일함으로써 길림의 제반 사업의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힘써 추진해야 한다. 첫째, 신심을 확고히 하여 배우고 기세를 몰아 일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발전 기회는 천재일우이고 발전 추세는 전례없으며 발전 전망은 비할 바 없이 넓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전면적인 진흥을 이룩할 때가 이미 왔다’는 저력과 ‘먼저 돌파하는 데서 내가 아니면 누가 또 있으리’라는 기개를 한층 더 증강하여 확고부동하게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 둘째, 사상을 해방하여 배우고 개척혁신적으로 일해야 한다. 시장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추진하여 신질생산력 발전을 속박하는 문제점들을 제거해야 한다. 재산권보호, 시장진입, 공평경쟁, 사회신용 등 시장 경제기초 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고 ‘방(放)과 활(活)’요구를 경영환경 건설의 모든 방면에 확실하게 시달려야 한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깊이있게 융합되고 중국과 로씨야가 ‘동북-극동’ 지역의 호혜협력을 전개하는 중대한 기회를 잘 리용하여 중로 관계의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 큰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셋째, 관건을 주시해 배우고 중점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일해야 한다. ‘4 대집권’ 육성을 중점으로, ‘6 신산업’ 발전을 방향으로, ‘4 신시설’ 건설을 보강으로 하는 신질생산력 발전 구도를 둘러싸고 산업사

슬, 혁신사슬, 인재사슬, 자금사슬을 배치하고 효과적인 투자와 중대한 프로젝트 건설을 중점적으로 틀어쥐며 소비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고 자원요소를 한층 더 활성화하며 전방백계로 성장을 안정시키고 내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강한 원동력을 주입해야 한다. 넷째, 서로 참고하면서 배우고 호혜상생하면서 일해야 한다. 형제 성, 자치구, 직할시들과의 조율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당정 상호 방문, 결연연계, 토론연구판단, 간부 상호 파견, 경제무역교류, 협동혁신 등 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5 화’ 폐환사업법으로 협력 프로젝트의 현지 시달 효과를 추진하여 전방위적이고 립체식의 상시화된 지역간 상호작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다섯째, 실제로 결부하여 배우고 착실하게 일해야 한다. 사고방식, 시야, 배치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책, 정밀한 관리, 정확한 락착의 리념 방법을 배워야 하며 길림의 기초조건, 자원우세에 입각하여 창조적으로 흡수 전환하며 진정으로 실제 방법을 배우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실효를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면 경제사업을 잘 틀어쥐고 기정목표의 실현을 확보하려면 공업생산을 전력으로 안정시키고 ‘1 기업 1 정책’으로 기업을 지지하고 이에 봉사하며 중점기업의 생산능력 방출을 추진해야 한다. 소비 활력을 전력으로 불러일으키고 각종 판촉 행사를 잘 실시하여 소비에 대한 관광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여름철 소비 열풍을 지속적으로 폭발시켜야 한다. 프로젝트 건설을 전력으로 다그치고 시공의 황금기를 서둘러 틀어쥐며 더 많은 실물 작업량의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농업생산을 전력으로 잘 틀어쥐고 홍수방지와 재해구조 준비를 실속있게

하여 량곡 풍작을 단호히 이룩해야 한다. 전력을 다해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여 사회 전반 국면의 조화와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

호옥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고찰학습의 성과 전환을 잘 틀어쥐고 먼저 목표를 돌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계속 전진으로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경제가 예기의 목표 수준에서 운행되도록 추진하며 중점행동의 착지 효과를 추동하여 상반기 목표 임무 ‘두가지가 절반을 넘도록’ 확보해야 한다. 효과적인 배치를 강화하고 풍작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중점업종을 조직하여 구조를 조정하고 완제품 생산량을 안정시키며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의 보상교환판매 정책을 실시하고 법인단위의 갱신 수요를 방출하여 경제의 호전 추세를 공고히 하고 증강해야 한다. ‘병든 운행’을 하고 있는 가스관에 대한 관리를 견결히 완수하고 교부 승낙 주택의 보유량 제거, 증가량 억제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야 한다. ‘창구기(窗口期)’를 틀어쥐고 대학졸업생과 특수군체의 취업을 잘 배치해야 한다. 신에너지 프로젝트 진척 관리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실물 작업량을 형성해야 한다. 장백산 등 중점관광지의 수용 능력과 공공봉사 보장 수준을 대대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채무청산(化债), 국유기업 개혁 심화 제고 방안의 실시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한다.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안전생산, 홍수방지 가뭄대처, 치안안정유지 사업을 잘함으로써 사회 전반 국면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회의는 화상형식으로 열렸다. 성 지도자들이 호가복, 채동, 장은해, 리위, 조로보, 리국강, 양안제, 성 직속 관련 부문과 각 시(주), 장백산보호개발구 책임 동지들이 각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길림일보

부르하통하 음악분수‘쇼’ 국경절 련휴까지

매일 19 시 30 분—20 시 10 분, 6 월 15 일부터 10 월 7 일까지

6 월 15 일 19 시 30 분, 연길시 부르하통하 음악분수 ‘물춤쇼’가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음악분수는 연길시 연길대교와 연서교 사이의 부르하통하 강면에서 진행되는데 총 길이가 158 메터이고 너비가 12 메터로서 최고 100 메터의 물기둥을 분사할 수 있으며 음악공연과 함께 ‘통행전하’, ‘경천옥주’, ‘시간과 더불어 전진’, ‘머리춤’, ‘화개부귀’, ‘천수관음’, ‘무지개 높이 걸기’ 등 여러가지 물춤 형태가 있어 조형이 풍부하고 관상성이 아주 강하다. ‘물춤쇼’는 주위 환경과 하나로 융합되어 연길의 민족특색과 문명도시의 형상을 충분히 과시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시각적 향연을 선사했다.

연길시하도종합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부르하통하 음악분수의 개방시간은 6 월 15 일부터 10 월 7 일까지이며 매일 19 시 30 분부터 20 시 10 분(평일 고정 회차 1 회, 명절 기간 적당히 시간 증가)까지이다. 분수 개방 공연 시간중 강풍, 호우 등 악천후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일 공연을



중지한다. ‘물춤쇼’는 〈연길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길은 당신이 있어 더욱 훌륭합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잊지 못할 그날〉, 〈우리가 함께 사는 가원〉, 〈두만강전〉, 〈즐거움 해란강〉, 〈붉은 해 변 강 비추네〉, 〈도라지타령〉, 〈집으로〉 등 곡들을 번갈아 틀고 있다.

‘쇼’ 시작 반시간전에 음악분수 북쪽의 강둑에는 이미 관중들이 사진에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해 음악분수가 개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쇼’가 시작되자 수많은 물기둥이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선율이 맞춰 분수가 뿜어내는 물결을 따라 춤을 추며 신룡이 꼬리를 흔드는 듯

하고 천녀가 꽃을 뿌리는 듯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냈다. 높은 물기둥이나 복잡한 조형물이 나올 때마다 관중들은 갈채를 보내고 탄성을 지르는데 하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 촬영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글 오건기자 / 사진 허철탁기자